

경제-종교 부정의와 한국 교회: 계시록 18:12-13을 중심으로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4-2)

논문초록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착취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가 경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계시록 18장에는 약 28개의 무역 물품 목록이 등장하는데, 요한 당시의 음녀 바벨론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과 무역한 것들이다. 음녀 바벨론은 사치품을 수입하였고, 경제 불평등과 착취를 일삼았다. 요한 당시에 경제적 측면은 종교와 연결되었다.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요한 당시의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음녀 바벨론은 누구인가? 로마제국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다수의 학자들은 음녀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보지만,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더 정당하다.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은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음녀 바벨론이 무역한 28목록과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 성전의 장식 사이의 간분문성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다루는 계 18장을 주석해 가면서 살펴본 후, 한국 교회의 사명을 위한 함의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경제-종교 부정의, 계시록, 로마 제국, 예루살렘, 한국 교회

- I. 서론
- II.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경제-종교 부정의
- III. 계시록의 경제-종교 부정의가 한국 교회에 주는 함의

I. 서론

‘계시록에 나타난 경제-종교 부정의’를 음녀 바벨론의 사치와 쾌망을 다루는 계 18장을 주석해 가면서 살펴본 후, 한국 교회의 사명을 위한 함의도 찾아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 성’과 대조된다. ‘로마’를 큰 성 음녀 바벨론으로 보는 Bauckham(1993: 338-339)은 계 16-22장의 구조를 살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 바벨론의 파멸로 이끈 마지막 7대접 심판(16:1-21)
- 바벨론과 그것의 파멸(17:1-19:10)
- 바벨론의 파멸에서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의 전환(19:11-21:8)
- 새 예루살렘(21:9-22:9)
- 계시록의 결어(22:10-21)

더 구체적으로 ‘음녀 바벨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계 17-18장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해 보자. 계 17-18장은 계 12장 이하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차대칭구조의 중앙에 자리 잡는다(참고. Poythress, 2000: 62-63):

- A. 창조 맥락에서의 여자-교회(12:1이하)
- B. 용(사탄)(12:3)
- C. 짐승들(13:1-18)
- D. 처녀 교회(virgin church)(14:1-5)
- E. 바벨론(17:1-18)
- E'. 바벨론에 대한 심판(18:1-24)
- D'. 처녀 교회(19:1-10)
- C'. 짐승에 대한 심판(19:11-21)
- B'. 용에 대한 심판(20:1-10)
- A'. 재창조된 새 예루살렘(21:1-2)

위의 교차 대칭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부에는 교회와 사탄 그리고 짐승과 교회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그들에 대한 상급과 심판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중앙 부분에는 바벨론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착취이다.¹⁾

II.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경제-종교 부정의

1. 음녀 바벨론의 죄악과 심판 예고(계 18:1-8)

1절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를 계 10:1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참고. 계 21:23). 이 천사의 큰 권세는 2절 이하에 나타나는 심판 메시지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녀를 대체할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출현이라는 회복도 암시되어 있다.

큰 성 바벨론은 ‘악령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다(2절). 소아시아 7교회의 대적이었던 음녀 바벨론의 배후에 악령들의 역사가 있었다(참고. 렘 27:9). 그런데 2절에서 힘센 천사는 “무너졌다(epesen). 무너졌다(epesen). 큰 바벨론이여!”라고 외친다. 반복된 동사는 확실한 미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예언적 아오리스트’이다. 이 외침은 구약에서 바벨론, 에돔, 그리고 니느웨의 붕괴와 비참을 예언한 것과 유사하다(참고. 사 13:21; 21:9; 34:5-14; 렘 50:39; 단 4:30-31; 습 2:13; 계 2:20; 9:20). 따라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장송곡(dirge-song)이 울려 퍼져야 한다.²⁾

3절에서 큰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를 접속사 ‘왜냐하면’(hoti)으로 설명한다. 바벨론의 종교적이며 우상적 영향을 수용하여 함께 음행했던 소수의 지배 계층인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사치로 치부했다. 파멸의 경제적인 이유는 사 23:1절의 ‘이방 나라’인 두로의 패망을 연상 시킨다(참고. 사 23:17; 겔 26-28). 따라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제국’인 로마를 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요한 당시 예루살렘도 큰 성이었으

1) 바벨론이 파멸의 심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성도를 죽인 것이다(계 18:24). Newbolt(1952: 173)는 계 18:24를 예수님이 불신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및 주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죄악을 질책하신 마 23:34-38과 적절하게 연결시킨다.

2) ‘큰 성 음녀 바벨론’을 로마제국으로 본다면 AD 476년에 서 로마제국이 망했다. 참고로 1543년에는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의해 동 로마제국이 멸망당했다. 그렇다면 요한은 자기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의 서 로마제국의 파멸을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예언한 것인가? 아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계 1:1, 3), 로마제국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의 2차적인 박해자임을 기억한다면, 요한은 로마제국의 실제적인 파멸이 아니라, 자기 당대에 로마 제국 안에 어떤 큰 혼란으로 인해 성도를 핍박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AD 68-70년의 로마 황실의 혼란상이 여기에 적합하다.

며, 그곳에 무역이 성행했다(참고. Chilton, 1990:455).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참고. 계 16:19)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곧 심판 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촉구 하신다(4절; 참고. 사 48:20; 52:11; 렘 50:8; 51:6, 9, 45). 5절을 직역하면 “그녀(음녀 바벨론)의 죄들이 덩어리로 함께 자라서(ekollethesan) 하늘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이다. 계시록의 수신자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 육체적이거나 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으려는 영적 차원이 강하다.

6절에서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 주고 그 행위대로 두 배(ta dipla)로 갚아주며 ...”라고 하늘로부터 나온 다른 음성이 말한다(참고. 렘 16:18; 50:29). 얼핏 보면 ‘동해 보복법’(lex talionis, 참고. 출 21:24)의 정신을 어기는 것 같다. 하지만 심판의 막중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두 배의 보복’은 구약에 등장 한다(참고. 출 22:4, 7, 9; 사 40:2; 61:7; 슥 9:12). 그런데 누가 음녀 바벨론에 두 배나 갚아주고, 그 여자가 섞은 잔(즉 3절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두 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하는가? 주체는 음녀로부터 고난 받던 사도 요한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참고. 신 32:35; 마 5:44).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로 볼 수 있다(참고. 계 8-9장의 7대접을 부은 천사들; 14:9-11). 거만하여 여황처럼 군림하며(참고. 사 47:7-8; 겔 27:3; 슥 2:15),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자만했던 바벨론을 향해서(7절), 강하신 하나님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하루 안에’(en mia hemera)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 하신다(8절).³⁾

2. 음녀 바벨론의 파멸을 보는 사람들의 애가(계 18:9-24)

9-19절은 구약의 장례식에 불린 ‘애가’ 형식을 따와서 바벨론의 임박한 파멸에 관하여 더욱 강도 있게 저주하며 묘사 한다(참고. 겔 27:29-30, 35-36). 9-19절은 ‘포괄식 구조’(inclusio)를 이루는데, 9-11절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15-19절에서 반복 된다. 중간 부분인 12-14절은 사치 물품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를 강조 한다(참고. Beale, 1999: 904). 9-10절을 등장인물에 따라 분류하면, (1) ‘땅의 왕들의 애가’(9-10절), (2) ‘땅의 상인들의 애가’(11-17a), 그리고 (3)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가’(17b-19)이다.

3) ‘하루 안에’와 유사한 것은 ‘한 시간에’(mia hora)이다(계 18:10, 17, 19). 간본문인 사 47:9는 바벨론의 파멸을 ‘한 날 한 순간에’라고 밝힌다. 바벨론은 전쟁으로 사망하고, 사망 때문에 애통하고, 적군이 불태워버린 농작물 때문에 흉년이 들 것이다.

12-13절은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무역했던 상인들의 ‘물품 목록’(gomon, list of cargoes)을 언급한다. 이 사치품들은 7부류다(참고. Van der Waal, 1981: 312): (1) 귀금속(금, 은, 보석, 진주), (2) 의복 재료(고운 베,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3) 가구류(각종 향목, 상아로 만든 물건,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 (4) 향료(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5) 식료품(포도주, 올리브유, 고운 밀가루, 밀), (6) 가축(가축들, 양들, 말, 수레), (7) 사람(종들, 사람들의 영혼들).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람’을 상품화한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종교는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었기에, 특히 물품들은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었다.⁴⁾ 물품 목록이 소개된 후, 즉 계 18:14-24에 바벨론의 과멸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로마 역사가들(Strabo, Tacitus, Dio Cassius, Lucian, Pliny, Procopius, Josephus)의 자료에 근거하여 물품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3. 계시록 18:12-13의 28가지 물품들(참고. Bauckham, 1993: 350-371)

(1) ‘금’(chrysos)을 로마제국의 소유였던 스페인 광산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왔다(참고. 왕상 10:14; 비교. 계 21:18).

(2) 1세기의 플리니(Pliny)는 스페인에서 수입된 ‘은’(argyros)을 로마인의 사치와 연결시켰다(참고. 왕상 10:21; 암 2:6).

(3) ‘보석’(lithou timiou)은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안 황제, BC 63-AD 14)이래로 번성했던 동방 무역 덕분에 주로 인도에서 수입했다(비교. 계 21:19).⁵⁾

(4) ‘진주들’(margariton, 남성 복수) 중에서 질이 낮은 것은 홍해에서, 고급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에서 수입했다(비교. 계 21:21). 로마인들은 진주를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귀하게 인정했다. Pliny는 진주를 ‘바다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불렀다. 네로는 연회에

4) 로마 제국의 항구와 상인 조합은 황제를 포함한 다양한 신들을 위한 신전으로 가득했다. Ostia항구에만 40개 이상의 상인 조합(trade guilds)이 있었고, 그 조합의 지도자는 황제 제의의 제사장직분도 가지고 있었다(참고. Kraybill, 2010: 147, 149).

5) 요한은 계 17:4에서도 음녀를 비슷하게 묘사했다. 이것은 ‘고급 매춘부’(courtesan)의 모습이다. 현대와 달리 요한 당시에는 경제, 정치,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친족’(kinship)과 ‘정치’(politics)라는 두 개의 사회 기구만 존재했다. 경제는 ‘가정 경제’(domestic economy)와 ‘정치적 경제’(political economy)로 나뉘었으며, 특별히 후자는 궁전, 군대, 신전 그리고 귀족정치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경제는 그 자체로 독립된 시스템 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했다. 종교 역시 정치적이며 친족적인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였기에, 친족 용어(아버지, 아들, 형제자매, 처녀, 아이, 후견인, 자비, 명예, 찬양, 용서, 은혜, 대속, 구속 등)와 정치 용어(왕, 왕국, 권세, 법 등)를 사용했다. 계 18장의 큰 성 음녀 바벨론은 ‘정치적 종교’와 ‘정치적 경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의 역할, 목표, 구조, 그리고 가치를 사용 한다(참고. Malina & Pilch, 2000: 221-222). 따라서 당연히 *Pax Romana*도 로마 제국의 종교적 강요와 결부된 ‘경제적 착취 시스템’과 관련 있다(참고. Bauckham, 1993: 347).

서 값비싼 진주를 단 숨에 삼키거나, 식초에 녹임으로써 진주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세기에 로마의 부유한 여성이 진주 장식 옷을 입는 것은 흔했다.

(5) 이집트와 스페인과 소아시아에서 수입해 온 ‘고운 베’(byssinos, fine linen)는 로마에서 양모 대신에 옷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6) 1세기에 ‘자주 옷감’(porphyra, purple) 옷이 많이 팔렸지만, 율리우스 시저(BC 100-44)부터 네로(AD 54-68) 때까지는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7) 로마인은 ‘비단’(sirikos)이 나무에서 나온다고 믿었는데, 나무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여겼다. 주로 파르티아를 경유하여 중국 한나라(AD 25-220)에서 수입했다. 참고로 Pliny는 로마와 중국, 인도, 아라비아 사이의 무역 총 액수를 ‘1억 sesterces’(약 1조원)로 언급 한다(참고. Aune, 1998: 999). 비단(silk)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곳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겔 16:13이다(참고. Lupieri, 2006: 289).

(8) ‘붉은 옷감’(kokkinos, scarlet)의 염색 재료는 연지벌레 딱갈나무(kermes oaks)에서 추출되었는데, 소아시아에서 수입해 왔다. ‘붉은 옷감’은 BC 1-AD 1세기 로마에서 ‘사치의 상징’이었다(비교. 계 19:8의 예수님의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참고로 ‘아마포’와 ‘양모 옷’은 지중해의 조개에서 나온 자주 빛 염료로 염색했다. 유명한 의류 시장이었던 스키토폴리스에서 판매된 고급 옷 한 벌에 7,000데나리온이나 했다(참고. Osborne, 2002: 648).

(9) 로마는 ‘각종 향목’(pan ksylon thyinon, citrus wood)을 북 아프리카 해안가 특히 모로코와 몰타에서 가져왔다(참고. 왕상 10:21). 향목으로 만든 가구는 부자의 연회에 필수품이었다. Pliny에 의하면, 향목으로 만든 탁자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키케로 (BC 106-43)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50만 sesterces’를 지불했다고 말한다(참고. 1sesterces는 4분의 1데나리온).⁶⁾

(10) ‘상아로 만든 물건’(skeuos elephantinon)의 소비는 요한 당시에 시리아 코끼리를 멸종 상태에 빠트렸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상아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인도에서 수입해 왔다. 의자, 침대, 탁자 다리, 문, 악기, 빗, 핀, 박스, 새장, 그리고 바닥 등에 상아가 사용되었다(참고. 왕상 10:18).

(11) ‘값진 나무로 만든 각종 물건’(pan skeuos ek ksylou timiotatou)에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수입해 온 흑단(ebony)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특히 은행나무로 만든 가구는 최고가였다.

(12) ‘청동’(chalkos) 중에서 고린도(그리고 스페인) 것은 ‘은’보다 더 가치 있을 정도였다.

(13) 식기와 방패와 같은 무기 등에 사용된 ‘철’(sideros)은 스페인에서 수입했다.

(14) ‘대리석’(marmaros)은 아프리카,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에서 수입했다. 대리석은 상

6) Osborne(2002: 648)은 이 금액을 250만 달러 혹은 500만 달러로 계산한다.

(statue)과 옥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15) ‘계피’(kinnamomon)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남부지역에서 수입했다(참고. 출 30:34).

(16) ‘향료’(amomon, amomum, fragrant smelling spice)는 남부 인도에서 수입했다.

(17) ‘향들’(thymiamata, 중성 복수, perfume, incense)은 제의적 용도는 물론, 장례식과 부자들의 방에 사용되었다.

(18) ‘향유’(myron, sweet-smelling ointment) 중에서 몰약(myrrh)은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되었다. Pliny는 몰약 1로마 파운드[325g]에 11-16.5데나리온이라고 밝힌다(참고. 왕상 10:25; 마 2:11; Aune, 1998: 1001).

(19) ‘유향’(libanos, frankincense) 재료는 소말리아와 남 아라비아(Sabaeon)에서 수입했다. Pliny에 의하면 고급 유향 1로마 파운드 가격은 6데나리온이었다(참고. Aune, 1998: 1001).

(20) ‘포도주’(oinos)는 특히 시실리와 스페인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수입했다(참고. 암 4:17; 계 6:5-6). 공작의 뇌와 나이팅게일의 혀와 같은 희귀한 음식을 갖춘 호화로운 연회를 즐긴 비텔리우스 황제(AD 69년 4-12월)는 1년에 음식비로 2,000만 달러를 지출했다(참고. Osborne, 2002: 649). 로마는 백포도주, 갈색포도주, 연한 적색포도주, 짙은 적색포도주로 나누었다.

(21) ‘올리브유’(elaion)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이 주요 공급처였다.

(22)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운 밀가루’(semidalis, fine wheat flour)는 아프리카산이 유명했다. 이집트 산 밀가루는 이탈리아 것보다 열등했다(참고. 스 6:9).

(23) 시실리와 사르디니아(Sardinia)는 로마의 ‘밀’(sitos) 공급처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었고, 대신 로마는 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건너 공급받았다(참고. 암 4:11). 매년 80,000톤의 곡물이 200,000명의 남자 성인들(참고. 로마 인구는 75-100만 명)에게 무료로 분배되었는데, 불만 세력을 잠재우려는 목적의 ‘곡물 구호품’(frumentationes, grain dole)이었다. 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소아시아에서 곡물 폭동이 일어났다(참고. Osborne, 2002: 649; Aune, 1998: 1002).

(24) ‘가축들’(ktene, 중성 복수 대격, 바른 성경: ‘소’)과 (25) ‘양들’(probata, 중성 복수)은 우유, 고기 그리고 양모를 위해서 뿐 아니라, 특히 야생 황소와 야생 양은 원형극장에 오락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입했다(contra Osborne, 2002: 649; 참고. 스 6:9).

(26) ‘말들’(hippon, 남성 복수)은 전차 경주를 위해서 아프리카, 스페인, 시실리,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리스에서 수입했다(참고. 왕상 10:28).

(27) ‘수레들’(hredon, 여성 복수)은 부자의 개인 여행용 혹은 군사용으로 Gaul에서 수입했다.

(28) ‘노예들’(somaton, 중성 복수, 참고. 창 36:6)은 버려진 아이(foundling)와 전쟁 포로 들일 가능성이 크다(예. 유대-로마 전쟁에서만 97,000명의 노예가 발생함, 유대전쟁사 6.420; 참고. 겔 27:13). 그리고 원치 않은 출산, 범죄에 대한 형벌, 부채 그리고 인신매매 등으로 노예가 발생했다(참고. Osborne, 2002: 650). 최대 노예 시장은 로마 도시였지만, 소아시아(특히 에베소)도 이윤이 높은 사업이었던 노예무역의 중요한 공급처였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의 수를 약 1,000만 명(혹은 6,000만 명)으로 추정하면, 전체 인구의 약 16.6-20%정도(혹은 50%)나 되었다(참고. Aune, 1998: 1002).⁷⁾ ‘사람들의 영혼들’(psychas anthropon)이 마지막 물품 목록인데, 겔 27:13(en psychais anthropon)에 근거하여 ‘노예들’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노예들 즉 사람들의 영혼들’로 번역할 수 있다. 고대 세계에서 종종 노예는 가축 정도로 취급 받았다. 총 28물품이다(참고. Aune, 1998: 1002; Van de Kamp, 2000: 408).⁸⁾

계 18:12-13의 전체 28물품 중 15개는 겔 27:7-25에도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요한 당시에 도 실제로 거래된 것이었다(참고. 왕상 10:14-29; 대하 2:7-16). 위의 28개 물품 중 Pliny가 언급한 것은 13개이다(참고. Beale, 1999: 909). 요한이 유배된 밧모 섬도 중요한 무역 통로였다(참고. Van de Kamp, 2000: 409). 로마 상류층의 사치는 결국 부정과 부패 그리고 약탈로 이어졌다(참고. 14절의 ‘네 영혼의 탐하던 열매’,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 요한 당시 지중해 연안의 그레코-로마 세계는 ‘후견인-단골손님’(patron-client)의 문화였기에, 후견인이 지나치게 누리는 부와 재물은 결국 단골손님의 것을 착취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므로 로마는 명예롭거나 자비로운 후견인이 아니었다.⁹⁾ 네로의 스승 세네카는 “로마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배(belly)를 가지고 있기에, 가장 크고 탐욕스런 짐승들을 능가한다”라고 말했다. 세네카도 피정복 국가들의 전리품으로 가능 했던 사치를 누린 자들을 저주했다. 물품 목록 중 사람과 생필 식품(staple foods)이 제일 나중에 등장한 것은 로마 제국의 뒤뜰어진 우선순위(perverse priorities)를 보여주는 것 같다(참고. Kraybill, 2010: 141-142). ‘새로운 두로’인 로마가 ‘제국주의’를 구축함에 있어서, 군사력이라는 ‘hard power’는 물론, 시장과 문화라는 ‘soft power’도 유용했다(참고. Mangina, 2010: 207; Van de Kamp, 2000: 409).

7) 롬 16:3-16에 나타나는 바울이 문안한 성도 중 3분의 2는 노예 출신으로 보인다. 참고로 로마제국의 노예는 영구적이지 않았기에, 30세가 되면 해방될 것을 기대했다(참고. Wilson, 2002: 109).

8) Bauckham(1993: 31)은 숫자 ‘28’에 ‘7(완전) x 4(온 세상)’ 즉 온 세상에 충만한 무역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요한의 의도인지 확실하지 않다(참고. Lupieri, 2006: 289).

9) 1세기 지중해 연안의 무역 상황을 지도로 보려면 Du Rand(2007: 514)를 참고하라. DeSilva(2009: 74)는 계 6:7-8이 로마제국의 글로벌 경제가 소아시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 미친 식량 부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리고 요한은 이사야처럼 사회-경제 정의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본다(참고. 사 1:17).

4. 무역 물품과 대제사장의 의복과의 관련성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음녀 바벨론을 ‘로마’에만 연결하는 것은 정당한가?”(예. Mounce, Bauckham, Osborne, Poythress, Du Rand, Van de Kamp, Keener, Kraybill). 음녀 바벨론이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점이 중요하다(16절; 참고. 계 17:4). 왜냐하면 요세푸스(AD 37-100)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참고. Gentry, 2009: 144; Beale, 1999: 913; contra Osborne, 2002: 651):

“대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할 때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덮는 고의(breeches)를 입었다. 고의는 세마포로 된 내의이며, 그 위에 발까지 닿는 푸른 의복을 입었고, 그 옷은 솔기 없는 통으로 되어 있고, 장식 술이 있었다. 장식 술에는 금종과 석류무늬의 장식이 번갈아가며 달려있었는데, 종(bell)은 천둥을 상징하는 것이고, 석류무늬 장식은 번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복에도 금색이 더 많이 들어갔다. 가슴의 흉배 장식은 금색, 자주색, 주홍색, 가는 베실과 푸른색의 알록달록한 색으로 만들었고 성전 본당에 있던 용단 휘장과 같은 색이었다. (예복 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벽옥, 남보석, 백마노, 자수정, 호박, 호마노, 녹보석, 귀강석이 있었다”(유대전쟁사 5:232-234; 참고. 출 25:3-7; 28:5-9, 15-20; 35:6; 36:8-12).¹⁰⁾

대제사장의 의복은 물론, 헤롯 궁전과 헤롯 성전도 음녀 바벨론의 사치스런 치장과 유사했다(참고. Barker, 2000: 292): “헤롯의 궁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사스러웠다. 그 사치나 장식들은 다른 어떤 건축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헤롯 궁전은 30규빗 높이를 사방이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쳐져 있었으며, 같은 간격으로 장식 탑들이 세워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연회석을 갖추고 있었고, 100명의 손님들을 위한 침실도 있었다. 그 안의 기구들은 화려했고, 각 나라의 희귀한 각종 보석들이 풍부히 장식되어 있었다”(유대전쟁사 5.4.4). “예루살렘 성전 안쪽으로 열린 문은 완전히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문 위에는 금으로 된 포도가 사람 키만큼 큰 포도송이들에 달려 있었다. 이 문에는 높이 55규빗, 너비 16규빗의 금 문짝들이 달려 있었다. 이 문짝 앞에는 바벨론 산 용단 위에 황도대의 상징물을 제외한 하늘의 온갖 파노라마가 그려져 있었다”(유대전쟁사 5.5.4; 예레미아스, 1988: 31). 다수의 계시록의 부분적 과거론자들(예. Van der Waal, Gentry, Chilton, Mathison, Jordan, Leithart, Corsini, Newbolt)은 이 간분문성에 기초하여 음녀 바벨론을 예루살렘의

10) Ford(1975: 305)는 계 18장의 물품들을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5.36, 5.190, 5.212-213, 6.390 그리고 유대고대사 15.390 등에 근거하여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과 대제사장 가문 중심의 무역으로 이해한다. 주요 상품은 식료품, 보석, 사치품, 의류였다.

성전에서 일한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타락한 유대 종교주의 혹은 종교지도자로 본다.¹¹⁾ Lupieri(2006: 290-291)는 계 18:12-13의 물품(그는 29개로 봄)과 왕상 10장과 대하 2장의 솔로몬 성전과 궁전의 화려한 장식을 비교하면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연결하여 이해한다(참고. Van der Waal, 1981: 311).

5.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로마인가?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더 살펴보자. ‘로마 제국’은 요한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며 모든 도로가 ‘로마’를 향했다.¹²⁾ 로마는 세계의 모든 무역품이 집결했던 장소였으며 이방인들의 집결장소와 같았다. AD 2세기 초의 헬라 웅변가 ‘Aelius Aristides’는 ‘Oratio 26:11-13’에서 로마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재인용. Van de Kamp, 2000: 414):

“그렇게 많은 상선이 각 나라 백성들로부터 매일 매시간 온갖 종류의 물품을 싣고 이곳에 도착했다. 마치 이 도시가 온 세상의 공장かと 같았다. ... 그래서 온갖 종류의 상품이 이곳으로 왔다. 해산물, 농산물, 광물, 그리고 현존하는 것과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온갖 종류의 공예품들, 만들어 내고 가꾸고 길러 낸 모든 것들이 무역을 통해 들어왔다. 이곳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뿐이다.”

네로와 같이 제국의 법정이나 궁중 오락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향수나 동물을 수입한 황제들 시대에는 수입 물량은 어마어마했다(참고. 콕스터, 1996: 530). AD 16년에 발표된 로마의 ‘사치 규제 법’은 남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을 금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승전의 축하행진 시 비단 옷을 입었다(참고. 타키투스, 연대기 2.33; Bauckham, 1993: 355).

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 역시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으며, 예수님을 죽이고

11) 겔 16장은 계 18장의 중요한 간본문이다. 갓 태어나 길에 버림 받은 여자 아기 이스라엘이 길을 지나던 여호와와 손에 구출되어 자라난다. 그녀는 ‘금, 은, 가는 베, 비단, 수놓은 옷을 입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매우 아름다워 여호와와 결혼하여 왕비가 된다(겔 16:13).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명성을 믿고 이방 나라와 음행을 하여, 여호와와 심판을 받고 만다(15, 23절; 참고. Osborne, 2002: 651).

12) 1세기 로마 제국의 국영 공도(公道)는 372개로 그 길이를 합하면 약 85,000km에 이른다. 이탈리아의 경우 1로마 마일마다(약 1.5km) 석조 이정표가 있었다. AD 1세기의 세금, 영토, 식량 소비 등을 종합해 볼 때, 로마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으며, 그 중 절반은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극빈자로 볼 수 있다. 빈부의 격차는 같은 변호사 직종 안에서도 나타났는데, 적어도 8명의 노예를 거느리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의뢰하지 않을 정도였다. 대부호의 경우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다. 가장 부유한 계층은 황제로서, 네로는 아프리카주의 절반을 소유한 6명의 지주를 살해하고 토지를 갈취했다(참고. 이상규, 2009: 12-19).

거역했던 장소이며,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도시였다(참고. 계 11:8; 보라. Barker, 2000: 292).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과 식료품 및 사치품을 공급받기 위해 원방 무역(그리스, 사이프러스, 페르시아, 두로, 인도, 레바논, 시돈, 애굽, 아라비아, 바벨론)을 했지만 근방 교역에 더 종사했다. 예루살렘의 막대한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참고. Newbolt, 1952: 170-171): (1) 성전세, (2)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비해야 했던 토지수입의 십일조, (3) 예루살렘을 관통하던 도로들을 중심으로 한 중개 무역세, (4) 자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보내며 쓴 경비. 예루살렘에는 곡물 시장, 과일시장, 가축시장, 목재시장, 살진 짐승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 심지어(유대인이 포함됨) 노예들을 전시하고 판매했던 특별한 경매석도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과잉 상태에 처할 만큼 엄청난 금이 시리아 속주에 공급되었기에 금 가격은 절반으로 거래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회년서 8:19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라고 언급 한다(참고. 예레미야스, 1988: 43-58).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둘 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핍박했기에, 하나님은 이 둘 중 하나만 심판하지 않고 교회의 신원을 위해 이 둘 모두 심판 하신다(참고. 7인, 7나팔, 7접시 심판). 예루살렘 하나만으로는 음녀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바 모두(종교, 정치, 군사적 측면)를 포괄할 수 없는듯하다. 부패한 정치 권세를 가진 로마제국이 부패한 종교 권세를 가진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정도까지(구약에서 ‘두로’가 ‘예루살렘’과 무역했듯이) ‘음녀 바벨론’으로 볼 수 있다(참고. 계 17:3, 16; 보라. Corsini, 1983: 339-340).¹³⁾ 그러나 구약에서 ‘음녀’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방인보다는 배교한 유대인을 가리키기에 (참고. 잠 31:21-22; 겔 16:13; 렘 4:30; 호 5:3-4; 4Q179), 바벨론을 ‘우선적으로’ 요한 당시의 불신 유대인(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⁴⁾

6. ‘언약의 저주’로서의 음녀 바벨론의 파멸

사도 요한 당시에 볼 때, ‘음녀 예루살렘’이 구약 선지자들과 초대 교회를 박해한 역사는 오래 되었고, 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인 네로 황제의 박해는 최근의 일이었다. 예수님도

13) 계시록을 이상주의(idealism)로 해석하는 이들처럼 음녀 바벨론을 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로마와 모든 시대의 세속적이고 억압하는 세력’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석의’와 ‘적용’을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 Smalley, 2005: 467; Beale, 1999: 755; 박윤선, 1991: 305).

14) 요한 당시에 음녀의 무역이 온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그 당시 배교한 유대교(음녀 예루살렘)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온 로마제국에 미친 영향으로 설명 가능하다. 마 23:15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 하셨다(참고. Newbolt, 1952: 170).

마 5:10-12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복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붙인 유대인들이 박해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 한다(참고. 마 23:29-37; 눅 6:23-26; 11:50-51; 롬 11:3; 살전 2:14-15; 히 11:32-38).¹⁵⁾

계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파멸의 요인을 배교한 유대인들(음녀 예루살렘)의 ‘언약적 실패’(covenantal failure)로 요약할 수 있다. 언약적 실패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의 복’(covenantal blessing)에 주목해야 한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도전 했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땅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를 너를 구속하셨다”(신 7:6-8). 선지자 아모스는 언약의 복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저야 할 책임에 대해 경고 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할 것이다”(암 3:2).

신약의 경우, 사도 바울도 롬 3:1-2에서 유대인의 유익을 칭찬했다. 하지만 스테반은 언약의 법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비판 했다(참고. 행 7:53).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찾아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다(참고. 요 1:11; 비교. 마 23:37-38).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실로 너무 큰일이었기에 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취한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찢어 죽였을 뿐 아니라(참고. 계 1:7),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죄를 더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음녀의 이름을 ‘예루살렘’ 그대로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은 ‘완전한 평화의 도시’이기에,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이름을 역사적 예루살렘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서 비판한 것(name-calling)은 구약 선지서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문학적 기교였다(참고. 사 1:10; 렘 23:14; 겔 16:46, 48, 53, 55).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을 뿐

15) 참고로 이 단락을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으로 보는 Chilton(1990: 464)은 바벨론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전의 5가지 중요한 특징 사이의 간분문성을 발견 한다: (1) 음악(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 대상 25; 계 18:22), (2) 장인들(craftsmen, 예. 브사렘, 오홀리압, 히람; 출 31:1-11; 왕상 5; 계 18:12), (3) 맷돌(성전 자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성전, 대하 3:1; 계 18:21), (4) 등불(성소 안의 등대, 출 25:31-40; 대하 4:19-22; 계 18:23), (5) 결혼(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 겔 16:1-14; 계 18:23).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도 꺾박한 배교한 이스라엘과 이혼하실 수밖에 없으셨다(참고. Gentry, 2008: 75-76).

7. 계시록의 경제-종교 정의에 관한 지침

여기서 계시록의 경제 정의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본문은 계 21:24-26이다. 이 구절에서 요한이 ‘항상 열려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대해 묘사한 것은 사 60:11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사야는 열방의 ‘재물’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하지만, 요한은 ‘영광과 존귀’가 들어온다고 말한다. 이사야와 달리, 요한은 물질적인 재물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요한의 초점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는 예배자로서의 이방인들(즉 불신자들)이다(참고. Beale, 1999: 1095). 이것은 회복의 시점인 종말에 이방인들도 구원 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 60:6의 성취이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속됨과 혐오스러움과 거짓을 행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계 21:27).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와 물질의 청기기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참고. 딤편 2:9).¹⁶⁾ 이를 계 21:9-21절의 새 예루살렘의 장식에 동원된 지극히 귀한 보석들(수정처럼 맑은 벽옥, 정금,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진주)에서 볼 수 있다. 이 보석들은 영원한 천국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도가 성령님의 명품 성전으로 자라가야 함을 교훈한다.

III. 계시록의 경제-종교 부정의가 한국 교회에 주는 함의

우리 시대는 ‘경제 발전’과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맘몬숭배 시대’가 아닌가? 맘몬 숭배는 원칙과 윤리를 무시하는 ‘거짓 실용주의’ 혹은 ‘기득권과 그것에 기생하는 세력의 횡포’와 맞물리기 쉽다.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섞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뒤틀린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다.¹⁷⁾ 비록 의견의 일치는 없지만 이

16) 계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간본문은 행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이다. 이 초대 교회는 물질의 청기기로 살았다(행 2:44-45).

17) 성경은 ‘경제적인 불의’에 대해 자주 경고 한다(참고. 잠 13:23; 14:31; 19:17; 21:13; 22:7; 사 10:2; 58:7; 렘 5:28; 겔 18:7-17; 22:29; 단 4:27; 암 2:6-8; 4:1-2; 5:11-12; 숙 7:10; 말 3:5; 눅 6:20; 14:13; 16:19-25; 18:22; 19:8; 갈 2:10; 약 2:2-6). Keener(2000: 442-443)는 로마제국주의와 현대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자행하는 오만함을 비교한다. 지금도 전 세계의 10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며, 4억 5천만 명은 기아에 직면해 있다. 개발 도상국가들의 유아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10배 높다. 매주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 혹은 영양 부족으로 죽어간다.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영구적인 지능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 매년 300-4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개발도

현상을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의 보존은 소홀히 한 채,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는 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물질 번영 중심의 복 개념을 예수님 중심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계시록의 7복: 1:3; 14:13; 16:15; 19:9; 20:6; 22:7, 14). 계 18장의 심판 받을 음녀 바벨론을 위해 부르는 ‘기생 세력들’의 애가는 자본주의 세계의 거품과 탐욕으로 발생한 현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교훈하는 바가 크다(참고. 최은경, 2008: 68-70). 그리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세속적인 자본주의와 거짓 실용주의에 의해 유린되기 쉽다. 그리스도인은 수직적 차원의 구원 즉 영혼 구원에만 전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수평적 차원의 구원 즉 경제 정의 실현, 지방과 서울의 격차 심화 해소,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개선, 구조적인 악의 타파,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장애인과 약자의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주의할 것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수혜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권익을 베푸는 자로서 상위에 위치한 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 그대로 이웃을 대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남아야 한다(참고. 손병덕, 2010: 315).

오늘 날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할 음녀 바벨론 성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바벨론’(혹은 ‘바벨’)이라는 물질 탐욕의 성(혹은 탐)을 쌓아 승배하는 대신, 주님의 신부(참고. *casta meretrix, chaste harlot*)와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바로 그 때 열방이 교회 안으로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들어 올 것이다.

상국들에 기초 교육, 보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전 세계인의 1년 골프 비용이다(참고. Poythress, 2000: 170). 선진국의 많은 부유한 소비자들은 육류 식단을 즐기는데, 그들은 자신의 식단이 제 3세계의 빈곤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 가운데 사료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를 차지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의 80%가 곡물 생산이 남아도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사료로 사용되며, 그 사료를 먹는 가축들이 도축되어 세계의 부유층 가정의 식탁에 올려진다. 육류의 과다 섭취는 소위 ‘부자병’ (성인병)을 유발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매년 2,000만 명 이상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 (소위 ‘가난병’, 영양 부족)으로 죽고 있다 (참고. 제러미 리프킨, 2005:473-474). 2010년 4-5월에 중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위 ‘문지마 살인’의 원인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부작용에서 원인을 찾는다. 즉 사회 낙오자들이 사회 체계에 대한 반감과 한을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예. 유치원생)에게 폭력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결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제시한다. 사회 불평등과 승자 독식이나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경제적인 차별은 물론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지기 쉽다(참고. 영화 ‘아마존의 눈물’).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공동체의 연대 문제이다. 이 글에서 음녀 바벨론을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측면과 연결시켰기에, 한국 교회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다. 대형교회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 자립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 일부 대형교회의 개 교회 중심주의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 고백에 어긋나서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킨다.

참고문헌

- 박윤선 (1991),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영음사.
- 손병덕 (2010), “칼빈과 복지,” 『칼빈과 21세기』, 서울: 부흥과 개혁사, 313-330.
- 이상규 (2009), 『교양으로 읽는 역사』, 서울: SFC.
- 최은경 (2008), “키워드론 본 2008 투자시장: 탐욕, 위기, 공포 ... 비판의 절규들,” 『이코노미스트』, 968, 68-70.
- Jeremias, Joachim (1962), *Jerusalem zur Zeit Jesu*, 한국신학연구소 역 (1988),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Koester, Helmut (1995),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이역부 역 (1996), 『신약성서 배경 연구: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 서울: 은성출판사.
- Rifkin, Jeremy (2004), *The European Dream*, 이원기 역 (2005), 『유리피언 드림』, 서울: 민음사.
- Aune, D. E. (1998), *Revelation 17-22*.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 Barker, M. (2000),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Edinburgh: T&T Clark.
- Bauckham, R. (1993),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 Beale, G. K. (1999),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 Chilton, D. (1990),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 Corsini, E. (1983), *The Apocalypse: the Perennial Revelation of Jesus Christ*, Wilmington: Michael Glazier.
- DeSilva, D. A. (2009), *Seeing Things John's Way: the Rhetoric of the Book of Revel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Du Rand, J. A. (2007), *Die A-Z van Openbaring*, Vereeniging: CUM.
- Ford, J. M. (1975), *Revelation.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Gentry Jr., K. L. (2009), *Navigating the Book of Revelation: Special Studies on Important Issues*, Fountain Inn: Good Birth Ministries.
- Gentry Jr., K.L. (2008), *The Book of Revelation Made Easy: You Can Understand Bible Prophecy*, Powder Spring: American Vision.
- Keener, C. S. (2000), *Revelation.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 Kraybill, J. N. (2010), *Apocalypse and Allegiance: Worship, Politics, and Devot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 Lupieri, E. F. (2006), *A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of John*, Grand Rapids:

- Eerdmans.
- Malina, B. J. & Pilch, J. J. (2000),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angina, J. L. (2010), *Revelation.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razos Press.
- Newbolt, M. R. (1952), *The Book of Unveiling: a Study of the Revelation of St. John*, London: SPCK.
- Osborne, G. R. (2002),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 Poythress, V. S. (2000), *The Returning King: a Guide to the Book of Revelation*, Phillipsburg: P&R.
- Smalley, S. S. (2005), *The Revelation to John*, Downers Grove: IVP.
- Van de Kamp, H. R. (2000), *Openbaring: Profetie vanaf Patmos*, Kampen: Kok.
- Van der Waal, C. (1981), *Openbaring van Jezus Christus II, Oudkarspel: Drukkerij en Uitgeverij De Nijverheid*.
- Wilson, M. W. (2002), *Revelation*, Grand Rapids: Zondervan.

Abstract

Economic-Religious injustice and Korean Church focused on Revelation 18:12-13

Young Mog Song(Kosin University)

This paper probes the Apostle John's notion on the economic-religious injustice in the book of Revelation. Because Revelation 18 deeply describes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harlot Babylon as the center of world trade in the first century, the present researcher focuses on that chapter. Revelation 18 shows 28(or 29) trading items which the harlot Babylon imported from the countries around the Mediterranean.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religious injustice in Revelation, a crucial question arises: "What or who is the harlot Babylon?" Is she the Roman Empire or Jerusalem? Although there are many commentators who regard the Babylon as the Roman Empire, Jerusalem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Roman Empire for two reasons: (1) the Babylon is identified by John as the

object of God's series judgments, and (2) the intertextuality between the 28(or 29) trading items in Revelation 18:12-13 with the decoration of the high priest and of the Jerusalem temple. God could not help punishing the harlot Babylon not only because her economic injustice, but also because of her persecution of the seven churches in Asia Minor. In an age of veneration of Mammon, the Korean Church should take some lessons from this economic-religious injustice and its resultant judgment.

Key Words

Economic-religious injustice, Revelation, Roman Empire, Jerusalem, Korean Church